

노인간호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효과

박수진¹, 박경숙^{1*}, 김영지¹

¹중앙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ttitude, Perception toward Dementia and Dementia Policy

Su-jin Park¹, Kyung-sook Park^{1*}, Young-Ji Kim¹

¹Red-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인간호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K시, J시 소재 간호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육군에게 56시간 노인간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SPSS Win 20.0을 이용하여 평균, 백분율, t-test, χ^2 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군에서 평균 27.10점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7.500$, $p=0.000$). 치매에 대한 태도에서도 교육군의 평균이 4.10점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423$, $p=0.000$). 치매정책 인식에서는 교육군에서 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70$, $p=0.090$). 이를 통해 노인간호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노인간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nonequivalent pretest-posttest quasi-experimental study. It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nursing geriatric nursing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ttitude, perception and dementia policy. Subjects were 172 persons, sophomore of nursing college in the city of K and city of J, and the education group was taken 56 hours of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Data were analyzed by mean, percentage, t-test and χ^2 using SPSS Win 20.0. As the result, in the education group, the knowledge of dementia was higher on average 27.10, and there was a significant statistic difference($t=7.500$, $p<000$). In the attitude of demencia, the average of education group was higher on 4.10, and the attitude about dementia in the education group was more positive and here was a significant statistic difference($t=1.423$, $p<000$). In the understanding of dementia policy, there was more positively improvement.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statistic difference ($t=1.70$, $p=0.090$). Through this result, we could recognize that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was effective for nursing students to improve knowledge about dotards, change attitude positively. Therefore we tried this study for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progress combining theory with practice.

Keywords : Attitude, Dementia Policy, Elders With Dementia, Knowledge, education, Geriatric Nursing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적인 것이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증가세가 가파르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Corresponding Author: Kyung-sook Park(Chung-Ang Univ.)

Tel: +82-2-820-5676 E-mail: kspark@cau.ac.kr

Received April 24, 2015

Revised (1st June 29, 2015, 2nd July 15, 2015)

Accepted July 16, 2015

Published July 31, 2015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1.8%였으며,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1] 고령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지 체감할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치매가 노인건강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 우리나라의 치매노인은 2013년 57만 명으로 노인인구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0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치매노인에 대한 간호 및 관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3].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치매특별등급을 개편하여 경중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치매는 원인이 불명확하고 완치가 어려운 뇌질환으로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언어기능 등이 상실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워지므로 타인에 의해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간호서비스가 요구되는 질환이다[4].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환자들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다양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므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5].

보건의료 현장에서 치매노인에게 직접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간호사이므로 치매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긍정적인 태도는 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6], 부정적인 태도는 진단과 치료, 지지, 의사결정 등에도 영향을 주어 치매노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7]. 치매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업무만족도가 낮고 소진이 높은 것은 치매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치매노인의 행동 장애에 관련된 문제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8]. 더욱이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이 일반노인환자보다 치매노인환자에게 더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9] 치매노인 간호서비스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간호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간호교육은 이론교육과 임상실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대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10]. 특

히 노인간호 교육은 1981년부터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노인인구의 건강문제 관리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노인간호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11]. 실제적으로 치매교육프로그램, 노인간호학 실습, 간호체험을 적용은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12,13].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교육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일 수 있으며[14], 이는 미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노인간호 분야를 회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15]. 따라서 노인간호 교육의 효과와 지속성을 고려할 때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노인 간호를 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노인간호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16].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노인간호 교육과 관련해서 [10,17,18,19] 등의 연구에서 노인 및 치매노인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습과 이론을 포함한 노인간호 교육을 받은 간호대학생(교육군)과 노인간호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대학생(비교육군)을 비교하여 치매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치매정책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과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노인간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노인간호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 노인간호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 노인간호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1.3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노인간호 교육을 받은 교육군은 노인간호 교육을 받지 않은 비교육군보다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을 것이다.
- 가설 2: 노인간호 교육을 받은 교육군은 노인간호 교육을 받지 않은 비교육군 보다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이다.
- 가설 3: 노인간호 교육을 받은 교육군은 노인간호 교육을 받지 않은 비교육군보다 치매정책 인식이 긍정적인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간호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및 태도와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Non-equivalent control-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Fig. 1].

	Pre education	Geriatric nursing education	Post education
Experimental group	Y ₁	X	Y ₂
Control group	Y ₁		Y ₂

X : Geriatric nursing education

Fig. 1. Research Design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개 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의 확산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군과 비교육군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선정하였다. 교육군은 K시에 소재하고 있는 간호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노인간호학 2학점을 수강 신청한 학생 중 설문참여에 동의한 학생 86명으로 임의 할당하였다. 비교육군은 J시에 소재하고 있는 간호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노인간호학 교과목 수강을 하지 않은 학생으로 설문참여에 동의한 학생 86명을 임의 할당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G*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유의수준 .05, 검정력 0.9, 효과크기 0.5로 가정하고 양측검증 일 때 각 그룹 당 86명씩 총 172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수는 교육군 86명, 비교육군

86명을 선정하였으며, 중도탈락 없이 총 17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일반적 특성 8문항, 치매에 대한 지식 16문항, 치매에 대한 태도 10문항, 치매정책 인식 10문항을 포함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는 [20]가 개발한 치매에 대한 지식측정도구 16문항을 노인간호학 담당교수 1인과 노인전문간호센터장 1인에게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정답은 2점, 오답은 1점으로 점수범위는 최저 16점에서 최고 3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hronbach $\alpha = .80$ 이었다.

2.3.2 치매에 대한 태도

치매에 대한 태도는 [20]가 개발한 도구 10문항을 노인간호학 담당교수 1인과 노인전문간호센터장 1인에게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 중 5문항은 정서적 태도, 5문항은 행동적 태도를 파악하는 내용이다. 본 설문지는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부정적 문항(정서적 태도 5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계산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hronbach $\alpha = .88$ 이었다.

2.3.3 치매정책 인식

치매정책 인식 측정도구는 [21]와 [22]의 연구에서 전문가의 신뢰도를 측정 받은 도구를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10문항으로 재구성하여 노인간호학 담당교수 1인과 노인전문간호센터장 1인에게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hronbach $\alpha = .82$ 이었다.

2.3.4 노인간호 교육

노인간호 교육은 본 연구자와 간호학과 학과장 1인이 노인간호학 교재를 중심으로 내용을 개발하고 노인간호

Table 1. Contents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Program

Sessi on	Durati on (hr)	Title	Contents
1	2	Characteristics of the ag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ing theory,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aged welfare policy
2	2	Acute and chronic issues and nursing (1)	Integumentary system, nutrition, digestive system and nursing for the aged
3	2	Acute and chronic issues and nursing (2)	Respiratory system, cardiovascular system and nursing for the aged
4	2	Acute and chronic issues and nursing (3)	Musculoskeletal system , activity and exercise, safety and environment for the aged
5	2	Cognitive and sensory disorder (1)	Neurological system and nursing: dementia
6	2	Special lecture of dementia	Understanding of etiology, disease, symptoms, characteristics, prevention of dementia
7	2	Cognitive and sensory disorder (2)	Mental/psycho/social aging: depression, suicide, elders abuse, dying and bereavement care - watch the video of hospice care (extreme job)
8	2	Team project and presentation	Case study of dementia critical thinking

학 담당교수 1인, 노인전문간호센터장 1인이 검증한 후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노인간호 교육은 총 56시간(이론 16, 실습 40)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론교육은 8주 동안 매주 2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론교육의 내용은 노인의 특성, 급·만성 문제와 간호, 인지·지각장애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치매에 대한 특강을 2시간 실시하였다[Table 1]. 그리고 호스피스병동 24시간 동영상 상영 후 감상문을 개인별로 제출하게 하였으며, 팀별로 치매에 대한 사례를 찾아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여 발표하게 했다. 핵심주제는 미리 공지를 하고 교재와 개인 유인물을 배부하였으며 강의를 통해 학습한 후 토의 및 발표를 실시하였다.

이론수업이 끝난 후 실습은 치매노인 환자의 입원병동과 주간센터로 운영하는 J시에 소재하는 시립노인센터에서 40시간 이루어졌다. 실습은 1일차에 센터 소개와 치매 대상자에 대한 정보 파악 및 Case study 대상자 선정, 2일차에 주간보호 대상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참가, 3일차에 병동에서의 간호서비스(투약, 드레싱, 활력 징후, 혈당측정, 체위변경 등) 실습, 4일차에 팀별활동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발 맞사지, 노래자랑, 고리던지기, 종이접기, 시장보기, 우유팩을 이용한 화초심기 등)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운영해보기, 5일차에 개별 치매노인 대상자 1명을 선정하여 Case Study를 실시하였으며, 치매노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적 간호중재법을 적용한 후 치매노인의 반응을 토의하였다.

2.4 자료 수집방법 및 기간

연구 참여자의 보호를 위해 각 학교 학과장에게 허락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설문지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여

를 참여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불이익이 없으며 참여자도 언제든지 연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인지시켰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임을 설명하고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교육군과 비교교육군의 사전조사는 학기 시작하는 3월 첫째 주에 이루어졌다. 교육군의 사후조사는 노인간호 교육 이론과 실습이 끝난 학기의 마지막 주에 시행되었으며, 비교교육군은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시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20-30분이었으며, 학생들이 설문지를 완성한 즉시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 172부(100%)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교육군과 비교교육군 간의 동질성 검증은 chi-square 또는 t-test으로 분석하였다.
- 3) 교육군과 비교교육군의 치매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치매정책 인식에 대한 문항분석과 차이 비교는 평균과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동질성 검증

3.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교육군과 비교교육군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11.6%, 여자 88.4%로 동일하였다. 교육군의 평균나이는 21.2세, 비교교육군의 평균나이는

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n=172)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86)	Cont.(n=86)	x ²	p
		n(%) or M±SD	n(%) or M±SD		
Gender	Male	10(11.6)	10(11.6)	0.00	1.000
	Female	76(88.4)	76(88.4)		
Age(year)		21.17±3.71	21.48±2.99	0.59	.557
Religion	Protestant	20(23.3)	12(14.0)	4.60	.204
	Catholic	6(7.0)	5(5.8)		
	Buddhism	28(32.6)	24(27.9)		
	None	32(37.2)	45(52.3)		
Past living experience with elders	Yes	2(31.4)	25(29.1)	0.11	.868
	No	59(68.6)	61(70.9)		
Current living experience with elders	Yes	7(8.1)	8(8.1)	1.01	.605
	No	78(90.7)	79(91.9)		
Communication with elders	Frequent	10(11.6)	14(16.3)	2.84	.411
	Occasional	29(33.7)	36(41.9)		
	Rare	38(44.2)	29(33.7)		
	Never	9(10.5)	7(8.1)		
Interest in elders/issues	Very much	5(5.8)	6(7.0)	2.84	.417
	Moderate	35(40.7)	37(43.0)		
	Little	36(41.9)	39(45.3)		
	Very little	10(11.6)	4(4.7)		
Willingness of family responsibility for elders	Yes	83(96.5)	81(94.2)	0.52	.720
	No	3(3.5)	5(5.8)		

*p<.05; **p<.01; ***p<.001

21.5세였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교육군 32명(37.2%), 비교육군 45명(5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거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있다는 대상자는 교육군에서는 31.4%, 비교육군에서는 29.1%이었으며,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교육군 8.1%, 비교육군 8.1%이었다. 노인과의 대화기회는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교육군 45.3%, 비교육군 58.5%이었으며,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교육군에서 46.5%, 비교육군에서 50.0%으로 비교육군의 비율이 더 높았다. 미래 부모님을 부양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교육군 96.5%, 비교육군 94.2%이었다.

교육군과 비교육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1.2 종속변수 치매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대한 동질성 검증

교육군과 비교육군 간의 치매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대한 동질성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2 문항별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3.2.1 문항별 치매에 대한 지식

교육군의 치매에 대한 지식문항 정답률을 보면 전체 16문항 중에서 정답률이 50%이하인 문항은 교육 전 총 9문항이었으며, 교육 후 2문항이었다. 각 문항을 살펴보면 “치매노인을 위해 서는 환경을 자주 바꾸어주면 도움이 된다 (43.0%)”, “치매는 약물로 완치된다(47.7%)”로 대부분의 문항에서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정답률이 개선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Table 3. Homogeneity of Knowledge Dementia and Attitude toward Dementia

(n=172)

Variables	Mean (SD)		x ²	p
	Exp.(n=86)	Cont.(n=86)		
Dementia knowledge	19.08±1.61	20.76±1.40	17.305	.019
Dementia attitude	1.84±.47	1.92±.43	32.532	.114

*p<.05; **p<.01; ***p<.001

Table 4. Proportions of Correct Answerers in Knowledge toward Dementia with Experimental Group (n=86)

Questions	Exp.		t	p
	Pre-edu n(%)	Post-edu n(%)		
Dementia is a disease.	76(88.4)	85(98.8)	19.91***	.000
*As growing older, everybody may have dementia due to aging.	25(29.1)	85(98.8)	4.29***	.000
*Dementia is related to genetic factors.	6(7.0)	85(98.8)	0.05***	.000
Man is more susceptible to dementia than woman.	80(93.0)	85(98.8)	0.12***	.000
*Dementia is caused by medical, neurologic, or psychiatric diseases	52(60.5)	84(97.7)	30.45***	.000
*Dementia is related to drinking alcohol	56(65.1)	78(90.7)	64.23***	.000
Dementia can not be detected early	14(16.3)	57(66.3)	0.02***	.000
*The risk of dementia is positively related to old age.	60(69.8)	67(77.9)	5.80***	.000
Dementia elder remembers well recent event rather than past event.	16(18.6)	46(53.5)	16.62***	.000
*Dementia elder is disoriented, wanders, and can not recognize a person.	85(98.8)	86(100.0)	9.41***	.000
Dementia elder can enjoy usual favorite things despite dementia.	25(29.1)	85(98.8)	8.71***	.000
*Less salt diet and balanced diet are effective in preventing dementia	33(38.4)	86(100.0)	36.44***	.000
*Regular life style and physical checkup help preventing dementia.	76(88.4)	85(98.8)	10.68***	.000
Changing environment frequently helps dementia elder.	22(25.6)	37(43.0)	0.00	.950
*There are curable dementias.	32(37.2)	67(77.9)	7.76***	.000
Dementia can be cured by medications.	37(43.0)	41(47.7)	0.54*	.029

*p<.05; **p<.01; ***p<.001

3.2.2 문항별 치매에 대한 태도

치매에 대한 태도를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 Table 5와 같다.

정서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교육군의 경우 교육 전에는 5문항 모두가 4점 이하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교육 후에는 ‘치매 환자는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4.20점)’, ‘치매는 개인적인 문제이며, 사회문제

는 아니다(4.27점)’, 치매에 걸린 노인은 그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돌아가시는 것이 낫다(4.28점)’의 3문항에서 4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비교육군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5문항에서 모두 4점 이하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행동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교육군의 경우 교육 전 5문항 모두가 4점 이하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Table 5. Differences of Attitude Toward Dementia in Both Groups (n=172)

Classifica-tion	Questions	Group	Pre-edu	Post-edu	t	p
			Mean±SD	Mean±SD		
Emotional attitude	*Dementia patients are felt as invalid existence.	Exp.(n=86)	1.77±.94	4.20±.91	0.16***	.000
		Cont.(n=86)	1.48±.61	2.64±1.53	199.54***	.000
	*Dementia is individual problem, not social problem.	Exp.(n=86)	1.76±.91	4.27±.89	0.08***	.000
		Cont.(n=86)	1.49±.66	2.47±1.40	76.98**	.001
	*I don't want to be closed to patients of dementia.	Exp.(n=86)	2.22±.99	3.77±.99	0.01***	.000
		Cont.(n=86)	1.87±.91	2.56±1.54	83.66**	.002
*The aged with dementia are better to be died for their family.	Exp.(n=86)	1.72±.90	4.28±.90	0.00***	.000	
	Cont.(n=86)	1.53±.79	2.66±1.64	127.03**	.003	
*If someone of my family gets dementia, I want to hide the fact.	Exp.(n=86)	2.06±.97	3.94±.97	0.00***	.000	
	Cont.(n=86)	1.51±.63	2.69±1.34	73.69**	.004	
Behavioral attitude	I want to take simple test for diagnosis of dementia.	Exp.(n=86)	1.78±.64	3.62±1.11	28.95***	.000
		Cont.(n=86)	2.51±.66	2.90±.97	23.07**	.003
	I think that it's important to be inter- ested in dementia for general people.	Exp.(n=86)	1.78±.86	4.42±.64	6.78***	.000
		Cont.(n=86)	2.66±.70	2.88±.90	7.86	.074
	I watch information or prevention about dementia in mass ommunications.	Exp.(n=86)	1.63±.78	4.07±.84	0.60***	.000
		Cont.(n=86)	2.64±1.12	2.77±1.21	1.55	.471
	Professional facilities for treatment of dementia patients should be established more.	Exp.(n=86)	2.13±1.24	4.10±.78	11.92***	.000
		Cont.(n=86)	2.12±1.17	2.42±1.29	4.71	.109
	Measures for dementia must be nationally taken.	Exp.(n=86)	1.40±.66	4.36±.70	0.25***	.000
Cont.(n=86)		2.01±1.25	2.70±1.41	13.53**	.001	

*p<.05; **p<.01; ***p<.001

Table 6. Differency Test in Knowledge Dementia

(n=172)

Variables	Group	Pre-edu	Post-edu	t	p
		Mean (SD)	Mean (SD)		
Dementia knowledge	Exp.(n=86)	19.08±1.62	27.10±4.07	7.50***	.000
	Cont.(n=86)	20.76±1.41	23.51±1.78		

* $p<.05$; ** $p<.01$; *** $p<.001$

Table 7. Differency Test in Attitude toward Dementia

(n=172)

Variables	Group	Pre-edu	Post-edu	t	p
		Mean (SD)	Mean (SD)		
Dementia attitude	Exp.(n=86)	1.83±0.47	4.10±0.42	1.42***	.000
	Cont.(n=86)	1.98±0.32	2.67±0.47		

* $p<.05$; ** $p<.01$; *** $p<.001$

Table 8. Differency Test in Knowledge Dementia

(N=172)

Variables	Group	Pre-edu	Post-edu	t	p
		Mean (SD)	Mean (SD)		
Recognition toward dementia policy	Exp.(n=86)	3.48±.040	3.42±0.43	1.70	.090
	Cont.(n=86)	3.80±0.51	3.68±0.46		

* $p<.05$; ** $p<.01$; *** $p<.001$

반면 교육 후에는 ‘나는 일반인이 치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4.42점)’, ‘메스컴에 치매에 대한 최신 정보나 예방법이 나오면 보게 된다(4.07점)’,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 더 생겼으면 한다(4.10점)’, ‘치매에 대한 대책은 사회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36점)’의 4문항에서 4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육군의 경우에는 5문항에서 모두 4점이하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3.3 가설검증

3.3.1 치매에 대한 지식 차이

‘노인간호 교육을 받은 교육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비교육군보다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노인간호 교육을 받은 교육군에서는 평균 19.08점에서 27.10점, 비교육군에서는 평균 20.76점에서 평균 23.51점으로 교육군이 비교육군보다 치매에 대한 지식 차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t=7.500$, $p<.000$) 가설 1은 지지되었다.

3.3.2 치매에 대한 태도 차이

‘노인간호 교육을 받은 교육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비교육군보다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노인간호 교육을 받은 교

육군은 평균 1.83점에서 평균 4.10점, 비교육군에서는 평균 1.98점에서 평균 2.67점으로 교육군이 비교육군보다 치매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t=1.423$, $p<.000$) 가설 2는 지지되었다.

3.3.3 치매정책 인식 차이

‘노인간호 교육을 받은 교육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비교육군보다 치매정책 인식이 긍정적일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노인간호 교육을 받은 교육군이 평균 3.48점에서 평균 3.80점, 비교육군에서도 평균 3.42점에서 평균 3.68점으로 교육군이 비교육군보다 치매정책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t=1.70$, $p=.090$)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4. 논의

고령화 현상으로 치매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치매노인의 질병 특성상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간호 및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치매노인에게 직접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간호사이며, 이들이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과 긍정적인 태도는 치매노인 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래에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긍정적인 태도 함양이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은 치매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간호 교육을 실시한 후 치매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치매정책 인식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노인간호 교육을 받은 교육군은 비교육군보다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교육군이 30점 만점에 27.10점, 비교육군이 23.51점으로 교육군에서 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간호 교육 후 치매에 대한 지식을 평가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치매교육프로그램을 교육한 후 치매노인에 대한 지식정도를 살펴본 [12]의 결과에서 10점 만점에 실험군 4.61점에서 8.89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 환자 간호체험을 현상학 연구한 [5]은 치매노인 환자를 처음 접해본 간호학생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으나 후반 치매노인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변했다고 진술하였다. [20]의 연구에서도 치매환자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일 때 그 상황이 힘들었으며, 지식 부족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치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간호학생들이 치매노인을 대할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의 경험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치매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대상자를 달리한 연구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24]의 연구에서는 30점 만점에 교육 전 26.94점, 교육 후 27.38점으로 나타나 지식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다르지만 치매교육이 지식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치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현재 연령과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치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용된 치매교육프로그램은 표준화된 것이 없고 연구자들이 문헌고찰을 통해 임의로 구성한 것이 사용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환자들의 간호 요구도를 고려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이용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육 전 치매에 대한 지식 문항 중 정답률이 50%이하인 문항은 전체 16문항 중 9문항으로 정답률 50.51%, 교육 후 2문항으로 정답률 84.21%였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24]의 연구에서도 교육 후 정답률인 89.8%로 본 연구결과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노인간호 교육에서 치매와 관련된 이론 및 실습교육 시간이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교육시간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간호 교육을 받은 교육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비교육군보다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치매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교육군은 교육 전 1.84점으로 간호학사 3학년을 대상으로 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를 한 [25]와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26]에서 간호학과 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는 다소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간보호센터에서의 실습 전·후를 비교한 [27]의 연구에서는 실습 전 일반노인보다 치매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으나 실습 후에는 일반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국외에서 발표된 [23]의 연구에서도 교육 후 치매노인에 대한 지식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태도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치매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대한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으나 치매에 관련된 교육이나 실습경험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다.

치매정책 인식의 차이는 교육군에게서 교육 전보다 교육 후 인식은 개선되었으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간호 교육은 2007년 기준 4년제 87.2%, 3년제 79.2%가 독립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나 이론시간에 비해 실습시간이 적었으며, 국가고시 과목이 아니므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다[11,29]. 현재 노인간호 학회 이사회의 권장 학점은 이론 2학점과 실습 1학점(3시수)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는 학교는 과반수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29]. 따라서 간호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인 간호 교과과정에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 개발과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노인간호 실습이나 경험을 통해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치매노인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노인간호 교육 후 그 효과를 연구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론 16시간과 실습 40시간을 병행했으며, 특히 임상실습을 통해 실제적으로 치매노인들과의 경험이 치매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간호 교육에서는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치매노인과의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습지를 제공하여 간호대학생들이 병원의 환자뿐만 아니라 가정간호,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치매센터, 요양원 및 노인관련시설의 노인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실적에서는 노인간호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치매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치매노인과 관련된 직업군의 지식과 태도 함양을 통해 치매노인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들을 두 곳의 간호대학을 임의 선정하였으며, 교육군과 비교육군에 무작위배정을 하지 못했으므로, 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들에게 확대·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치매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측정하는 보다 정확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가치는 국내·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태도와 인식 조사 연구가 미비하므로 향후 다른 연구의 기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들의 노인간호 프로그램을 계획, 적용, 평가할 때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이용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교육, 연구, 사회, 실무적 측면에서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실습과 이론을 병행한 56시간의 노인간호 교육을 적용하여 치매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노인간호 교육을 받은 교육군이 노인간호 교육을 받지 않은 비교육군보다 치매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었고, 치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령화 현상으로 치매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간호 및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현장에서 치매노인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간호를 수행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노인간호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대한 효과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노인간호 교육과정 적용이 필요하다. 나아가 치매노인과 간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Elderly Statistics 2012*. Retrieved March 26, 2011, from <http://kostat.go.kr>
- [2] H. I. Kweon,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Toward the Aged with Dementia in Chung Cheong Buk - Do",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2008.
-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spective Dementia Management of Risk Factors including Alcohol", Press release, 2014. 6. 24.
- [4] H. J. Lee, "Care giving Experience and Adaptation Process of the Husbands who are Caring for Wives with Alzheimer-Focusing on Elderly Couple Household",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6 No. 1, pp. 45-62, 2006.
- [5] E. S. Kong, E. J. Kim, "Study on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Caring Older Patients with Dementi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23, pp. 9-36, 2014.
- [6] Courtney, M., Tong, S., & Walsh, A., "Acute-care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atient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Vol. 6, No. 2, pp. 62-69, 2000.
DOI: <http://dx.doi.org/10.1046/j.1440-172x.2000.00192.x>
- [7] Benbow, S.M., & Reynolds, D., "Challenging the stigma of Alzheimer's disease", *Hospital medicine*, Vol. 61, No. 3, pp. 174-177, 2000.

- DOI: <http://dx.doi.org/10.12968/hosp.2000.61.3.1295>
- [8] Brodaty, H., Draper, B., & Low, L.F., "Nursing home staff attitudes towards residents with dementia: strain and satisfaction with work.",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44, No. 6, pp. 583-590, 2003.
DOI: <http://dx.doi.org/10.1046/j.0309-2402.2003.02848.x>
- [9] J. H. Kim, "Attitudes Toward General Elders and Elders with Dementia Among Baccalaureate Ju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8, No. 4, pp. 601-610, 2007.
- [10] D. S. Shin, S. R. Suh & E, J, Lee. "Subjectivity of Kore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Geriatric Hospital Practic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18, No. 4, pp. 622-631, 2006.
- [11] Y. J. Lee, "A Study on the Offering Status and Curriculum of Gerontological Nursing Course", The Graduate of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7.
- [12] H. Y. Kang, M. J. Chae, H. S. Seo, K. M. Yang, "The Effect of Dementia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1, pp. 69-77,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1.69>
- [13] Y. Y. Hwang, "The Study of the Nursing Students Live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of Dementia Pati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0, No. 1, pp. 161-171, 2004.
- [14] Isabella, M., & Frederic, M., "Attitudes towards hospitalized older adul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47, No. 4, pp. 446-453, 2004.
DOI: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4.03122.x>
- [15] Stevens, J., & Crouch, M., "Who cares care in nursing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Vol. 32, No. 3, pp. 233-242, 1995.
DOI: [http://dx.doi.org/10.1016/0020-7489\(95\)00002-F](http://dx.doi.org/10.1016/0020-7489(95)00002-F)
- [16] K. A. Choi,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the Eldely", The Graduate of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6.
- [17] S. Y. Park, Y. S. Park, "Geriatric Hospital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Aged and Geriatric Nursing Education Need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3, No. 1, pp. 59-65, 2007.
- [18] M. S. Song, "A Study of Nursing Student Needs in a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10, No. 2, pp. 121-130, 2008.
- [19] J. H. Kim, "Short-term Effects of Gerontological Nursing Lecture Course on Attitudes toward Elders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10, No. 2, pp. 173-181, 2008. <http://www.gnursing.or.kr/>
- [20] H. O. Cho, "A Study on Public's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s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1999.
- [21] M. J. Oh, "The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dementia in Korean soc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2002.
- [22] J. S. Han,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recognition and attitude about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2004.
- [23] Scerri, A., Scerri, C.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Dementia-A Questionnaire Survey", *Nurse Education Today*, Vol. 33, No. 9, pp. 962-968, 2013.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12.11.001>
- [24] K. M. Yang, "Effects of Educational Program about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Dementia for Trainees on Care Helper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1.
- [25] J. H. Kim, "Comparisons of Image toward Elders Demented Elde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2, No. 2, pp. 133-143, 2000.
- [26] S. H. Kim, "Knowledge, Attitude, and Recognized Service Requirements for Dementia concerning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nd Social Welfare, Woosuk University, Jeonju, 2013.
- [27] J. H. Kim, "Effects of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um on Attitudes toward Elders with Dementia and General Elders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 Vol. 36, No. 4, pp. 645-651, 2006.
- [28] E. S. Yun, "Study on the Curriculum of Gerontological Nursing", The Graduate of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7.
- [29] C. G. Kim, E. H. Kong, S. S. Kim, S. J. Kim, Y. H. Park, M. S. Song,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in BSN Programs in South Korea: Present Status and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the Futur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15, No. 3, pp. 185-191, 2013.

박 수 진(Su-Jin, Park)

[정회원]



- 2011년 3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박사수료)
- 2011년 9월 ~ 2015년 2월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3월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치매, 성인간호, 시뮬레이션

박 경 숙(Kyungsook Park)

[정회원]



- 1995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 2012년 1월 ~ 현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위원
- 2011년 3월 ~ 현재 : 노인 간호사회 부회장, 복지이사
- 2007년 3월 ~ 현재 : 한국 보완대체 간호사회 부회장
- 2012년 3월 ~ 현재 : 한국간호과학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 보완대체간호

김 영 지(Kil-Dong Hong)

[정회원]



- 1995년 5월 ~ 2001년 3월 : 서울대학교병원 외과계중환자실 근무
- 2001년 4월 ~ 2003년 12월 : 한국화이자제약 의학부 근무
- 2003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박사과정중)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